

그리스도교 신앙의 계승

우라카미와 소토메, 고토 열도에 거주하던 기리시탄은 지도자의 지도 아래 바스찬의 교회력(일본의 음력에 맞춰 1634년에 편찬된 교회력)에 따라 축일을 함께 기념하고, 단식일을 지키며 세례나 장례 등의 의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1603년, 선교사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 없을 때 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곤치리산노리아쿠』나 성서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지시지사(天地始之事)』(1829년 출판) 등 여러 교리서가 계승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토메 지구에서는 교회력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전도사 바스찬이 남긴 4개의 예언이 전승되었습니다. 바스찬의 예언이란, ① 7세대 이후 나의 자식과도 같은 이들의 영혼은 괴로움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② 콘페소르(고해 신부)가 서양의 커다란 배를 타고 찾아와 매주 콘피상(참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③ 어느 곳에서든 큰 소리로 기리시탄의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고, ④ 거리에서 쟈티우(이교도)와 만나면 상대방이 먼저 길을 양보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스찬의 예언은 매우 놀랍게도 1659년에 그가 순교한 날로부터 정확히 7세대가 지난 약 230년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교(異敎) 사건(우라카미쿠즈레)

지역마다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형태는 달랐지만, 잠복 기리시탄이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같았습니다. 이와 함께 막부에서는 잠복 기리시탄이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지 않는 한, 처벌을 가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신도(神道)나 불교 등 일본의 기존 종교나 지역 사회와 공생하는 절묘한 균형감을 유지하며 잠복 기리시탄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라카미에는 수많은 잠복 기리시탄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18세기 말이 지나면서 밀고로 인해 여러 차례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복 기리시탄은 기리시탄으로서가 아니라 더욱 넓은 의미에서 이교도로서 처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90년에는 마을의 촌장이었던 다카타니 에이자에몬이 우라카미무라의 야마자토 주민 중 19명이 기리시탄으로 의심된다며 나가사키 부교쇼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막부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주민을 공식적으로 기리시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우라카미 이치반쿠즈레라고 불립니다.)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839년에 발생한 우라카미 니반쿠즈레에서도 이와 같은 검거와 석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1856년에 발생한 우라카미 산반쿠즈레에서는 밀고로 인해 시로노코시 지역의 의사였던 가타오카 순민과 그의 아들, 조카타(최고책임자)였던 기치조 등 우라카미 잠복 기리시탄의 지도자들이 잇달아 포박되었습니다. 가혹한 심문이 가해졌고, 이들 대부분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라카미 산반쿠즈레도 ‘이교(異敎)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라카미 산반쿠즈레가 발생했을 때, 조카타였던 기치조를 취조한 제 113대 나가사

키 부교 오카베 스루가노카미 나가쓰네는 당시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라카미의 자택에 숨겨두었던 마리아 백자 관음상과 금속으로 만든 '이냐시오'상(예수회의 창설자 이냐시오 데 로올라) 등도 다수 몰수당했습니다.

그림 1

《눈의 산타 마리아》(소토메에서 전래)

17세기 초엽

(일본 26 성인 기념관)

그림 2

《마리아 관음》

17세기경

(선종 조동종(曹洞宗) 덴푸쿠지 절)

1856년 우라카미 산반쿠즈레가 발생한 당시, 우라카미의 기리시탄이 마리아 관음상을 후카보리령 가시야마에 위치한 덴푸쿠지 절에 피난시켰다고 전해진다. 덴푸쿠지 절은 기리시탄 신앙을 묵인한 곳이었다.